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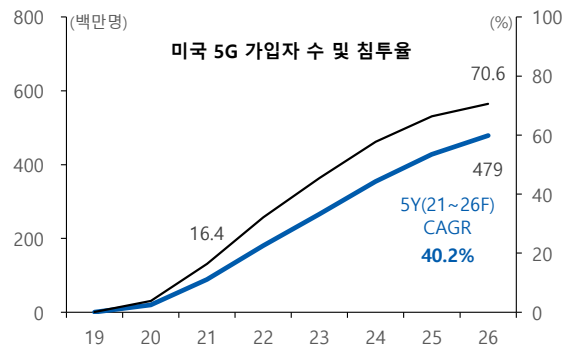


가시화되는 5G 보급 확대

1. 통신서비스: 미국 5G 보급 확대의 원년이 될 올해

- 우량한 현금 창출 기반의 경기 방어적 특성, 올해 5G 커버리지 확대와 가입자 최다 순증 전망에 따른 모멘텀 가시화로 투자 매력이 높은 통신 업종.
- 미국 5G 가입자 수는 21년부터 향후 5년간 40.2% 성장, 21년 16%의 5G 침투율은 26년 71%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대역 5G 시장 선점을 기반으로 올 연말까지 가장 넓은 5G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목표를 제시한 T-Mobile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

5G 가입자 수는 향후 5년간 40.2% 속도로 성장, 5G 침투율은 55%p 상승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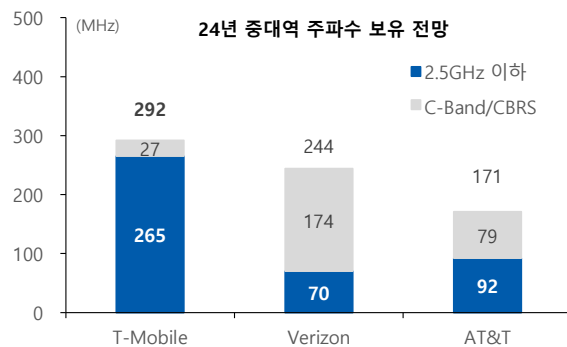


자료: Ovum TMT Intelligence,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T-Mobile: 중대역 5G 시장 선점으로 시장 지배력 우위 유지

- 고대역과 저대역에 기반하는 경쟁업체 대비 2.5GHz 중대역 보유 기업 스프린트 합병('20.4.)으로 중대역 시장을 조기 선점한 T-Mobile.
- 다운로드 속도 우위는 자연히 가입자 순증을 수반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
- 투자 행보도 적극적으로 향후 24년 역시 중대역 주파수 점유율 1위 전망 등 중대역 시장 내 공고한 지배력이 유지될 전망.

중대역 시장 지배력 유지 전망,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투자 행보



자료: Statist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통신서비스: 미국 5G 보급 확대의 원년이 될 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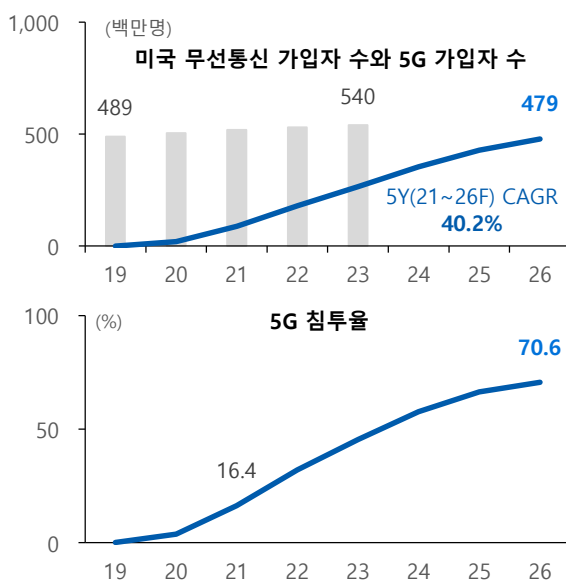
현 매크로 국면에서 미국 통신 서비스 업종은 분명한 투자 매력을 갖고 있다. 우량한 현금흐름 창출에 기반한 경기 방어적 특성은 물론 올해 최대 2억명의 5G 고객 커버리지가 확보되며 가입자 최다 순증 전망으로 성장 모멘텀 또한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공급망 차질의 점진적으로 완화에 따라 올해 5G 설비 투자를 본격화하는 AT&T와 버라이즌은 올해 연말까지 각각 7,000만, 1억 7,500만 명에 이르는 고객에 도달하는 5G 커버리지 확보를 목표하는 등 5G 서비스 확대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Ovum TMT Intelligence 조사에 따르면 26년 미국 5G 가입자 수는 4.8억명으로 21년부터 향후 5년간 4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1년 16% 수준의 5G 침투율은 26년 71%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Mobile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한다. 중대역 5G 시장 선점을 기반으로 올 연말까지 2억 600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넓은 5G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할 예정으로 시장 지배력과 성장성에서 입증이 된 기업이기 때문이다.

[차트1] 5G 가입자 수는 향후 5년간 40.2% 속도로 성장, 5G 침투율은 55%p 상승할 전망.



자료: Ovum TMT Intelligence,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6GHz 중대역 시장 선점을 기반으로 가장 넓은 5G 커버리지를 제공하게 될 T-Mobile.

평균 주파수보유 (MHz)	Dish	AT&T	Verizon	T-Mobile
600MHz	17.8	2.6	0.0	30.0
700MHz	4.6	47.8	21.7	10.0
800MHz	0.0	0.0	0.0	0.0
Cellular/850MHz	0.0	22.6	24.5	14.1
PCs	0.0	38.0	21.0	64.9
AWS	71.2	32.3	46.2	40.2
WCS	0.0	30.0	0.0	0.0
2.5GHz	0.0	0.0	0.0	150.0
CBRS (3.55~3.65GHz)	20.0	0.0	34.0	0.0
C-Band (3.7~3.98GHz)	0.0	80.0	161.0	40.0
3.45GHz	30.0	40.0	0.0	7.0
Sub-6GHz(중대역)	143.6	293.3	308.4	356.2
mmWave (24~39GHz)	680.0	423.1	1,463.7	658.3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T-Mobile: 중대역 5G 시장 선점으로 시장 지배력 우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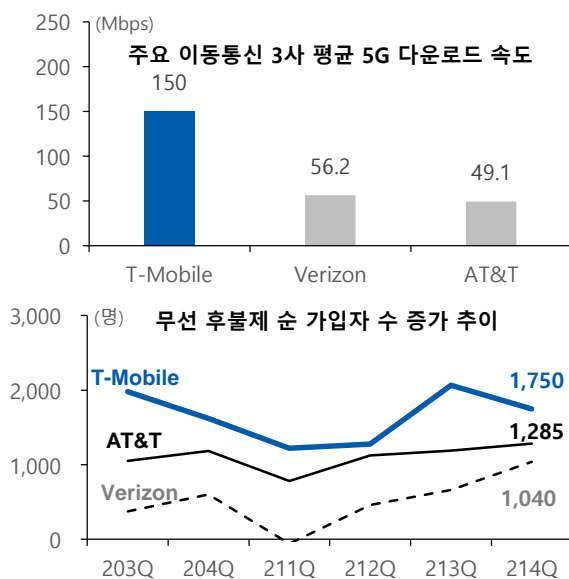
주파수 대역은 속도와 서비스 범위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높은 주파수 대역은 적용 범위가 좁은 대신 속도가 빠르다. 중대역은 속도와 서비스 범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5G 서비스로 확장성 측면에서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Verizon과 AT&T는 5G 상용화와 함께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28㎐ 고대역과 850㎐ 저대역을 할당받았고 전파 단절과 속도 한계로 고전했다. 한편 T-Mobile은 2.5㎐ 중대역을 보유한 스프린트를 합병(20.4.)하며 중대역 시장을 선점했다.

이를 반영하며 작년 12월 기준 다운로드 속도에서 주요 경쟁사와 이미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순증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최근 경쟁사들 역시 C-Band 대역을 위주로 중대역 주파수를 적극 확보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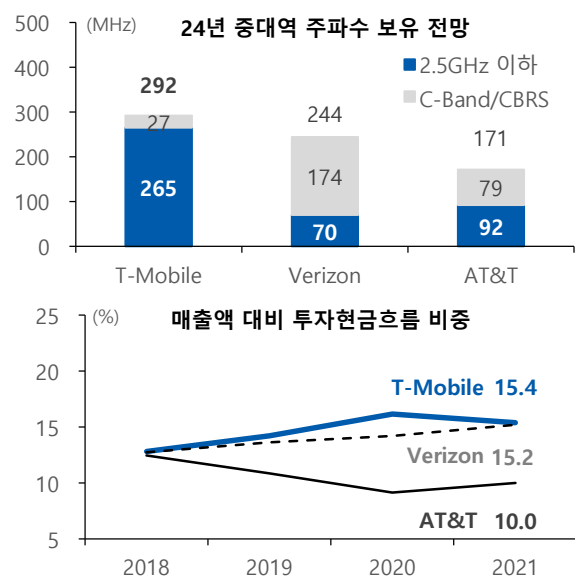
한편, T-Mobile은 현재 매출액 대비 투자활동 현금흐름 비중이 3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투자 행보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향후 24년 역시 중대역 주파수 점유율 1위가 전망되고 있는 등 중대역 시장 내 공고한 지배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차트3] 중대역 시장 선점 반영하며 다운로드 속도와 신규 가입자 확보에서 우위.



자료: OPENSIGNAL,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중대역 시장 지배력 유지 전망,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투자 행보.



자료: Statista,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